당신이 세상을 등진 사이에

(시편 33:1~22)

4.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7.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10.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당신이 세상을 등진 사이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등진 사이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를 패러디해서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육신(이맹전 조여 원호 김시습 성담수 남효은) 중의 한 사람인 김시습을 아실 것입니다. 김시습은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여덟달 만에 글을 깨치고 다섯 살 때에는 시를 지어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 칭찬하며 앞으로 큰 인물이 되어 임금을 보필하라고 당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김시습이 어려서 뜻을 굳게 세우고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여 지내는 동안에 1453년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란(癸酉靖難)을 일으켜서 조카인 어린 단종을 내쫓고 임금이 되자, 사대부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임금 세조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김시습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내쫓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에서 패역무도한 임금을 줄서서 섬길 때에, 도저히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펼치고 싶지 않았던 김시습은 세상을 원망하며 책을 불사르고 머리를 깎고 관직을 버린 채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방랑생활을 하며 떠돌다가 경주의 금오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담고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세조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

(金鰲新話)입니다. 금오산에서 새로 지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신화라고 합니다.
김시습을 비롯한 생육신은 계유정란에 나라가 무너져 내림을 보면서 세상을 등지고 평생 초야에 묻혀서 벼슬길을 마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비해서 사육신(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폐위된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애쓰다가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오늘은 신앙인을 사육신과 생육신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은 사육신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잘못된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 세상을 비롯해 가족과 직장 나라 등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느끼며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책임과 부담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육신이 단종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신앙인은 이 세상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이 사육신과 신앙인의 다른 점입니다.
생육신과 비교해보면 신앙인은 오히려 이들과 비슷합니다. 생육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방랑했던 것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시 신앙인이 세상을 등지는 이유는 생육신의 이유와는 다릅니다. 생육신은 삼촌이 조카를 폐위시키는 패륜을 보다 못해 이 세상의 인륜과 기강이 무너졌다는 이유에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의 부패 때문에 세상을 등지지 않고, 썩은 정치에 등을 돌려버린 유권자들처럼 나라 정치에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이 나라와 가정과 직장에서 등을 돌리는 이유는 그 장소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득히 모셔 들이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충만하게 모셔 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드린 대로 사육신처럼 세상을 바꾸겠다는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육신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면 내가 등 돌린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는 내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가정에 등 돌리면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등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에서 잘 생기고 잘 나가는 증권맨이 나옵니다. 이 젊은이가 날마다 전철을 타고 증권가로 출근을 하는데, 전철표 판매 부스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이 젊은이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아가씨가 뛰어내려서 청년을 병원으로 실어 나릅니다. 젊은이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병원에 찾아온 가족들은 이 아가씨를 젊은이의 약혼녀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얼떨결에 약혼녀가 됩니다. 제목대로 청년이 잠든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것은 생육신처럼 가정과 직장을 떠나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

다. 직장이나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 속에서 마음으로 가족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살면서 나라를 등지고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을 등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 안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직장과 가정과 나라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에 등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편 33편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보시다시피 따로 표제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참회와 그에 따른 죄사함을 노래한 32편에 연속되는 시로 보고 편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연속적인 하나의 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32편 10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악인이었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참회함으로서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곧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은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을 신뢰하는 것은 세상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라고 한 것은 곧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 그 결과로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3편 1~3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다른 표제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곧바로 ‘찬송하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다윗이 지은 32편과 하나의 시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내용적으로는 학자들의 의견처럼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33편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32편에서 일어난 참회에 따른 죄사함의 기쁨이 33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죄에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하는 반역죄가 있고, 과녁이 빗나가 잘못 맞추는 죄, 즉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므로 다른 과녁을 향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선민들에게서 나타나는 간사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 직선이 아니고 세상으로 들

렀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굽은 마음을 가진 죄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세상이라는 과녁을 향하게 되고 마음은 세상을 담은 채 하나님을 굽어진 마음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반역한 죄에 대한 죄사함은 '짐을 들어 올린다, 짐을 들어 나른다.'라는 '나사'라는 단어로 표현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등 돌리면 삶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의 짐을 지지 않게 됨을 뜻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대해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죄사함을 통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이 죄사함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고, 내가 등진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특이한 점은 '여호와의 말씀, 그가 행하시는 일, 또 여호와의 말씀, 그의 입 기운, 말씀하시매, 명령하시매, 그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의 기운, 말씀, 생각, 명령이 다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의 기운'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말씀도 명령도 그가 행하시는 일도 직접 몸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의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입의 기운으로 장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기쁨이자 만족이심을 알고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세상을 등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에 의해 장악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가정을 등지면, 하나님의 입 기운이 나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영향력에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고 느끼거나 아니라고 말할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의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등지고 있는 사이에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입 기운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잘못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합니다. 내 삶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인간세상의 조건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판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등진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걱정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고 하는데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 기운은 이미 그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8~9절에서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이어집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등지면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는 죄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나라가 뜻을 펼치고자 해도 내 삶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손해도 내 삶의 영역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손해로 느끼질 않게 됩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는 고통은 있었을지라도 하늘이 열림을 보면서 그곳으로 가게 됨을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등지고 있는 사이에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생각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대대로 이루어질 일들에 기초와 시작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필요가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은 더 이상 요셉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고 관심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더 이상 아버지로서 어떠한 책임이나 부담을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야곱의 마음이 잠든 사이에, 요셉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학원과 선생을 찾아다니며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내 등 뒤에 있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입 기운이 임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 기운이 자녀들을 향해 전해지게 될 때에 결코 부당하게 느낄만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인자와 사랑이 가득하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등진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입 기운을 통해 정의와 정직과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등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17절을 보면 기가 막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많은 군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힘센 용사가 되어야 스스로

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세상을 등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 조건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무엇 하기 때문에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오합지졸들에게 국가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던 가나안 땅의 정착민들을 향하여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로 내려치고 마른 땅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등 진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도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출신 학벌 스펙 능력 등의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 기운이 임하실 때에 내가 등진 삶의 영역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삶을 놓쳐왔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받아들이고서 세상 것을 잘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육신처럼 세상을 등지기 위하여 사육신처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백 번, 천 번, 만 번 불러도 소용이 없고 오직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십자가만 붙잡아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도무지 맘에 들지 않을 때에 목숨 걸고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녀로부터 등 돌리고 목숨 걸고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목숨 걸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라가 난장판이 되어도 김정은이 핵실험을 해서 위기에 처할지라도 목숨 걸고 나라를 등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도 건강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입 기운이 등 돌린 세상을 장악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생육신처럼 세상을 등지고 사육신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등진 사이에 등 뒤의 세상은 하나님의 입 기운이 장악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느라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승천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내가 등진 세상은 하나님의 입 기운이 장악하실 것을 약속해주셨으니 감사 위에 감사요 은총 위에 은총임을 알아 오늘도 세상 등지는 일에 목숨을 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